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다”
(시18:1)

주간 중 헌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윤명식

편집국장:손경수

발행처:대한예수교장로회

중헌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300 FAX: 563-3932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11월 8일에 다시 만남시다

◆ 환영사 ◆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92 예수 사랑 큰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천군천사들도 찬양하며 화답하는 복된 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넘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기쁨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눅10:23),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도다”(눅19:9)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는 민족의 제사장 교회가 되기 위해 힘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신뢰가 사라져가고 믿음이 점점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무엇으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바로 잡을 수 있는 해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 민족의

과제를 오늘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잡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됨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아픔인 민족 분단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벌써 민족 분단 47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교회 설립 39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역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인 민족 분단의 문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생의 축복과 하늘의 소망의 축복에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정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2. 11. 1
당회장 신성종 목사

11월 8일에 환영회로 다시 모이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많은 이득을 남겼다.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 그러나 유독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겨오지 못하고 본전만 가지고 왔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이 남겨오지 못해서일까? 아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핑계하기만 좋아했으며,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남에게 돌리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결과만 가지고 논하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결과가 있기까지 얼마나 힘을 다하였느냐를 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에 만족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얼마나 최

선을 다했느냐를 생각하여야 한다. 이것이 인간 제도와 다른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그 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92 예수 사랑 큰 잔치가 베풀어지는 날이다. 결과에 대해서 무척이나 궁금해 할 것이다. 어떤 이는 새로운 사람이 얼마나 왔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려고 할 것이다. 어떤 이는 투자한 비용에 합당할 만큼의 결실이 있느냐를 따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적인 숫자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만족할 필요가 없다. 다만 오늘이 있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인 성도들의 노고에 대한 치하가 있을 뿐이며 무엇보다도 어려운 발걸음을 돌려 새로 오신 분들에게 고마울 뿐이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이 잔치가 있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뿐이다.

오늘 우리의 이 잔치는 이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과거 속에 묻히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이 잔

치는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 그것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결단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온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다음 주일(8일)에 열리는 새가족 환영회가 그것이다. 4부 예배가 끝나는 시간인 오후 2시에 본당에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를 모시고 기쁨의 잔치가 열리게 된다. 교회 측에서는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정성이 담긴 선물을 준비하였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새가족을 인도하여 오신 분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중헌교회목표

중헌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전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3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영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층에 맞도록 교회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성경연구원과 기타 교육 활동 등을 통해 평생 교육을 실시하여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는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진력하는 교회가 되

고자 합니다. 특히 북한 선교는 1977년부터 시작한 선교 활동으로 북한 선교가 앞당겨지도록 기도와 모든 힘을 모으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세계 선교를 이루는 것입니다. 혈통과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968년에 해외복음선교회를 설립하고 1971년 사만수 선교사를 인도네시아에 파송한 후 세계 선교는 중헌교회의 기도 제목에 되었습니다. 중헌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한 한국의 선배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새신자 등록 절차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날은 더욱 더 혼돈됩니다. 우선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203호(본당 입구 오른쪽)로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아울러 인도하신 분들도 이젠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제의 떡

예배가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에 교회에서 준비한 교제의 떡을 나누게 된다. 이 떡은 잔치 집의 기쁨을 표시함과 동시에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예의의 표시이기도 하다. 비록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이라 생각하여 기쁨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베드로 가정의 축복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마8:14~17)

옛날에는 크리스마스때면 선물교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물을 내놓고 번호를 타서 뽑힌 번호의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큰 선물도 있고, 아주 작은 선물도 있었습니다. 어떤 선물은 상자는 큰데 내용은 별것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아주 작고 포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내용이 좋습니다.

이 세상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 집 참으로 성공했다.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용을 보면 형편 없는 것이 많습니다. 반대로 “저 집은 저주받았어.”라고 하면서 나중에 보면 그것이 바로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가정에 온 축복이 바로 이런 것 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 재앙이라고

2 신유의 비결

첫째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데서 비롯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마8:14)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에 복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 직장이 복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가정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왜 초청했을까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병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초청을 했습니다. 집에 우환이 있는데 손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그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이것이 첫

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마8:16)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자신 없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만 자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감히 남의 마음에 구원을 주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말로는 남을 설득시킬 수도 없고, 감화시킬 수도 없으며 더군다나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면 마음의 문이 열려집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네 가지 비결,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먼저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육안으로 보셨지만 오늘 의 예수님은 육안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세번째로 주님의 능력의 손이 닿아야 합니다. 그 손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천지의 손입니다. 그 손이 지금도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또 말씀으로 쫓아 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했던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게다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기억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순서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의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야에 관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럼 왜 여기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

마태는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함으로써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야이고 우리들이 섬겨야 할 그 메시야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야입니다. 그것은 그의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말을 할 때 권위있게 보이려고 남의 말을 인용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예수님이 고치신 그 내용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의 앞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되었던 메시야이시고 하나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축복을 의미

하는 옷, 환란이라고 하는 옷, 역경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오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장이 잘 되고 해서 내용이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공이 아닌 멸망을 가지고 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는 재앙 같고, 저주 같고, 환란 같은데 나중에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축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베드로 가정의 축복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의 가정에 함께 살았는데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용어가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열병이라고 했고, 또한 마태가 의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열병이라고 기록을 했지만 요즘으로 말하자면 장질부사라고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 네 가지 중요한 축복이 왔습니다.

첫째는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적은 역경 속에 빠졌을때, 고난 속에 빠졌을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그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간의 유대가 강화되었습니다. 세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베드로의 장모가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수종들 수 있는,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변해 신유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하면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서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번째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가신 것이 아니라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마8:14)

이것은 주님의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출세하는 방법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첫째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둘째 연예인처럼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세번째로 돈이나 권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눈에 띄이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의 눈에 띄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면 그때 예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주님의 손이 닿아야 합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마8:15)

왜 주님이 만졌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교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은 단순히 교제의 손만이 아니라 능력의 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간에 예수님의 손만 닿으면 다 나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만 닿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말씀으로 쫓아 내셨다고 했습

문제 해결 받은 후에는 봉사의 생활 잊지 말아야

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3 구약의 인용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마8:17)

이 구절의 난하주로 이사야 53장 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사야 53장 4절에는 “우리의 질고를 받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도 바뀌었고, 단어도 다릅니다.

의 아들이심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지금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귀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 결론

첫째는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과 환란이 다가올 때 이것을 저주나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만 모시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됩니다. 두번째로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 주님 앞으로 나아와야 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침받은 자는 반드시 주님의 수종을 들어야 계속적인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고 봉사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92 예수 사랑 큰 잔치

새벽기도회 은혜 중에 마쳐

기도로 예수잔치 준비 마무리



말씀을 증거하시는 신성종 목사

새벽기도회 전경



기도로써 전도에 헌신코자 다짐하였다

'92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앞두고 지난 일 주일 동안 새벽기도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새벽기도회에는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도 이번에 10명 이상 초청하여 결실을 맺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확신과 전도의 자신감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드려졌다.

이번 기도회는 예전과는 달리 자원하는 성도들끼리 모여진 기도회였기에 예년과 비교

해볼 때 숫자적으로는 다소 적은 감이 있었으나

기도하는 분위기는 예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더욱 더 뜨거웠던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설교 내용을 미리 기록한 워크북을 가지고 진지하게 말씀을 전파하시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설교하는 모습

에서는 확신이 넘쳐 있었고 전파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새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호응은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를 염원하는 온 성도들의 앙상불이었다.

총현프리즘

⊙...약 1년간 기도하며 준비했던 총동원주일행사(일명 '92 예수 사랑 큰 잔치) 주일이 오늘이다.

이 일을 위하여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지난 한 주일은 특별새벽기도회(오전 5시~6시)까지 마치고 전도 초청자를 교회서 만나게 된다. 한 사람이 10명 이상 초청할 수 있는 이번 기회는 우리 총현교회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전도 방법이다.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들의 목표 달성은 3만 5천명 이상을 출석시키는 일과, 불신자 3천명 이상을 결신시키는 일이다.

강남구 역삼동에 8년 8개월여의 건축 공사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기좋은 석조 예배당을 봉헌한 이래 우리 교회는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자리가 꽉 차기를 기도했다.

이제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오늘이며,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연차적 부흥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다.

본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듣고 싶다.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 말씀에 감화감동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싶다. 찬양대석(양쪽)에 빈틈없이 자리한 성가대원들의 천사의 음성(찬양)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자리를 보고 싶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의 간절한 신앙고백들이 이번 '92 예수 사랑 큰 잔치에서 열매 맺기를 소원한다.

⊙...오늘 처음 총현교회에 오신 여러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을 부끄러워 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정말 훌륭한 용기를 내셨습니다.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여러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교회 각 기관의 안내에 따라 움직여주시고, 새로 믿기로 작정하는 결심도 하시며, 새신

자 명부에 등록하는 용기와 믿음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줄 것이며, 교회가 마련한 떡잔치에도 참여해주시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분류된 교구의 지도교역자(목사·장로)도 만나시고 장로와 권사, 집사, 그리고 인도자와 함께 만남의 장소에서 교회 소개와 안내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오늘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을 다 못하더라도,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열심과 인내를 보여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우리 총현교회에 찾아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 환영회를 위한
교구일꾼 총동원

이번에 새로 등록한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구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이번 월요일(2일)에 새신자들의 구역이 분류됨에 따라 각 구역장들은 심방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수요일(4일)에 교구의 지역장, 부지역장, 구역장, 특별구역장, 권찰들의 모임이 수요일부 예배 후에 있게 된다. 이 때 새로 오신 분들

의 기록 사항이 구역장에게 전달된다. 구역장들은 그 명단을 가지고 심방하여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람들은 11월 8일 4부 예배 후에 실시되는 새신자 환영회에 참여하게 되고 그 후에 그들은 총현 교인이 되며 그 다음 주간에는 교역자들의 심방이 있게 된다. 교구의 모든 일꾼들은 11월 4일 수요일부 예배에 꼭 참석하여야 할 것이다.

헌금은 헌금함에

오늘은 헌금을 예배 중에 드리지 않고 본당으로 입장하면서 헌금함에 바로 헌금을 하고 입장을 하게 된다. 예배 중에 드려지지 않는다는 하여서 헌금하는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져서는 안될 것이다. 온 정성으로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것이다.

카메라 초점



▲ 교회학교 각 부서는 배가 성장을 위해 태신자를 작성하고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며 초청전도집회를 갖는 등 '92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준비하였다. 사진은 지난 10월 25일에 열렸던 장년2부 초청전도집회 모습

원로권사 및 장기 근속자 확정

오는 12월 27일에 있을 은퇴 및 장기 근속 포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원로권사

김신도, 오희명, 장순자, 최석주, 윤상규, 이정신, 김순애, 고임생, 여정옥, 이예강, 김인숙, 방어순, 김관옥, 문명숙, 박영옥, 이후덕, 김순실, 임화순, 이순녀, 강숙열

◆ 장기 근속자

· 장로
20년 이태규
15년 김영삼, 윤명식, 조선근, 김은호, 오태희
10년 서일영, 박인세, 하대선, 안익태, 윤인현, 최대원, 최상규, 박승준, 엄필성, 정광호, 송기홍, 강은원, 강모용, 오정현, 최성현, 이훈, 남선우, 서동석

· 권사

15년 유분홍, 원도화, 이의복, 이봉재, 임순철, 이점순, 지숙원, 심숙

이대실, 이문자, 성복순, 백금순, 이명자, 윤영애, 이정신, 김순실, 이예강, 김정례, 석옥순, 김효정, 이봉남, 박옥식, 조말례, 황숙영, 조계진, 이희수, 오희명, 유순녀
10년 조종원, 신수옥, 김태건, 이영남, 이귀분, 김남진, 이인경, 경홍옥, 김영옥, 황규선, 안소현, 박영숙, 전일향, 박인옥, 강숙열, 한영숙, 김태숙, 윤여전

· 찬양대

15년 이현숙, 장옥순
10년 민병란, 홍원희

· 교사

15년 이경현, 김중선, 이홍자, 최태욱
10년 윤정희, 이득해, 허만선, 김용숙, 김영숙, 박양덕, 김순실

· 직원

15년 김차철

93년도 서리집사 후보 및 신임 권찰 교육 실시

· 일시 :
1차 교육 : 11월 5일~6일
오전반-10:30~12:10
오후반-19:00~20:40중 택일
2차 교육 : 11월 12일~13일
오전반-10:30~12:10
오후반-19:00~20:40중 택일
· 장소 :
서리집사 - 교육관 307호
권찰 - 교육관 303호
· 대상 :
93년도 서리집사 후보 중 면접에
합격된 자와 신임 권찰 전원

안수집사 복직

임기채 · 이형수 집사

우리 교회 제4대 안수집사로
봉사하던 중 일시 개척 교회를 섬
기던 임기채 집사와 이형수 집사
가 복직되었다.

고등부 성극 발표

· 일시 : 11월 8일
오후 1시, 3시 30분
· 장소 : 나사렛홀
· 제목 :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경로대학 야외학습

살림경로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야외학습을 다녀
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변의 노인들에게 알리어 전도의 기
회가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
고 있다.

· 날짜 : 11월 5일(목) · 장소 : 속리산
· 회비 : 만원
· 참가자 : 60세 이상의 노인(타교인 및 불신자도 가능)

성경 다섯째권 - 신명기

1. 제목
히브리성경의 신명기 제목은
"데바림"(말씀들)로 이는 신명
기의 첫 부분에 나오는 "이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라는 구
절에서 기인한다.

2. 저자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
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라고 신학자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신명기 31장
9절 이하에서도 "이 율법의 말
씀"을 모세가 전했을 뿐 아니라
기록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단지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
용을 담고 있는 34장은 모세에
의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히브리문학에
서는 위대한 사람의 마지막 작
품에 그의 사망 기사를 첨가하
는 것이 관례였다.

3. 중심사상
신명기 전체의 중요한 주제
는 언약의 갱신이다.

언약의 갱신을 위해 신명기
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
한 민족이 될 것을 요청받는 내
용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경고와 격려가 기록되어 있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불순
종에 대한 형벌의 확실성에 의
해 강조되었고 특히 언약의 갱
신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 받게
되는 축복과 안식의 약속에 의
해 절정에 이른다.

4. 영향
오경 중 신명기는 선지자들
에 의해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다. 여리고가 점령되었을 때,

그 성읍과 전리품은 전부 바쳐
졌는데(수6:17, 18), 이는 신명
기 13장 15절 이하를 지킨 것이
다. 이 외에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하에는 신명
기에 기록된 율법들을 준수했다
는 기록이 나오며 선지자 호세
아나 아모스도 신명기의 율법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예수님은 시험당할 때,
세 번 모두 신명기의 말씀을 인
용하였으며,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크고 첫째되는 계명"(마
22:38)이라고 묘사했다.

5. 개요

- (1) 서론
- (2) 광야 생활 요약
- (3)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의 대략
- (4) 언약의 재확인
- (5) 결론

● 구역예배 ● '92 예수 사랑 큰 잔치 특별공과
(1992. 11. 6)

아름다운 구역을 이룹시다

· 본문 : 시편 16편 1절~11절 · 찬송 : 278장, 280장
· 요절 : 시편 16편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
로 아름답도다"

우리는 11월 1일의 '92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하여 많은 믿음의 새가족들
을 교회와 구역 안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
리의 구역에 보내주신 영원한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할 빛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역 안에 새가족들을 철저히
살펴보며 심방하고 기도해주며 지속적인 교회 생활로 잘 인도해주어야 합니
다. 또 그들을 우리의 구역에 초청하여 말씀 안에서 귀한 사귀를 시작해야 합
니다.

다음주부터 구역공과는 '92 예수 사랑 큰 잔치 양육 특별공과'로 다루어집
니다. 이 기회에 새가족들과 함께 신앙의 기본을 다시 다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은 구역이 아름다운 기업이 될 수 있기 위
하여 새가족들을 잘 맞이 위한 구역의 준비를 다시 점검해봅시다.

1.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3절).

성경은 최고의 가치를 물질이나 세속적인 문화나 보화와 같은 것에 두지 않
고 한 영혼에 둡니다(막8:36).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나 영혼
의 구속을 위하여는 그 외이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또한 우
리의 형제로 부르시는 사람들은 주께서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고 귀한 보배
피로 사서 구속하신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다윗은 본문에서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한 자'요, 또한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기쁨이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에게 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
인들은 어떤 존재이었는지 서술해보십시오:

〈살전 2:19, 20〉

우리는 이런 영혼들을 위하여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며 은혜 안에서 잘 인도
해야 합니다.

2. 새가족들과 함께 하나님만 힘써 예배하고 섬기는 구역을 이룹시다(4, 5

절).

아름다운 구역은 모여서 예배하고 섬기는 구역입니다. 특히 새가족들과 더
불어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는 사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과(2절) 기업들(6절) 받게 될 것입니다.

(1) 말씀의 나눔 : ① 양육특별공과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 교구모임시
교구별 담당목사의 구역공과 예비교육 시간에 전 구역일꾼들이 철저히 참석합
니다. ②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인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③ 전 구역식구들이 공과의 목표를 분명히 파악하고 생활에 적용
하도록 합니다.

(2) 예배환경 : ① 장소는 1주일 전에 새신자들에게 잘 알려주고 2, 3일 전
에 재확인합니다. ② 예배 후 불참 가정은 꼭 심방합니다.

3. 줄로 재어 주신 구역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6절).

우리의 구역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안에서 줄로 재어 주신 권역입니다.
이 권역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
나 우리도 이 주권적 권역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일과, 우리 스스로도 힘써 구역과 구역의 모든 식구들, 특히 새
가족들을 잘 붙들어 주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만 합니다. 특별히 온
구역식구들은 다음을 유의하며 구역을 돌봅시다.

(1) 새신자 심방 : 새신자 심방은 원칙적으로 등록된 그 주간 안에 실시하
며, 이때 기본적인 교회 및 교구 조직, 교회학교(특히 새가족부), 전도회 등도
설명합니다.

(2) 교회 출석을 잘 안하는 가정 : 구역에서 명부를 가지고 매주일 교회 출
석을 지혜롭게 살피어 교구 구역자에게 보고하며 교회 주보를 가지고 출석하
지 못한 교우들을 잘 심방합니다.

(3) 구역내 잃은 양 찾기 : 구역의 개념은 단순히 모이고 있는 성도만이 아
니라 그 구역이 포함하는 행정적인 권역 전체로까지 확대됩니다. 그 안에 방황
하는 양, 밀다가 낙심한 양, 삶에 시달리고 지친 양, 교회의 초청을 기다리고
있는 양들에게 찾아가서 적극 권유합니다.

◆ 기도

우리 구역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가족들을 많이 보내어 주옵시고, 저
들을 사랑과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여 영적 재산과 배가가 이루지는 구역이
되게 하소서.